

# 여수 주승용·김성곤 압도적... 선거구 통합여부가 더 관심

## 김동철·전감길 호각지세... 이정남 두자릿수 지지율

## 이용섭 독주 속 지난달보다 지지율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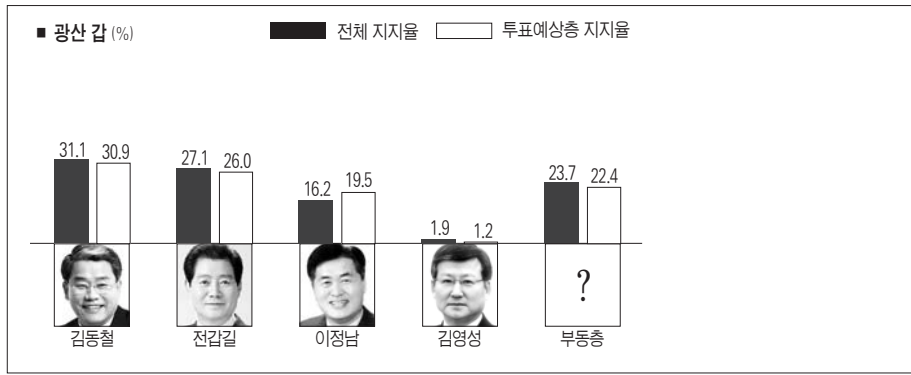
### 광산구 갑

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과 전감길 전 17대 국회의원의 '리턴매치'가 펼쳐지고 있는 광주 광산 갑에서는 김 의원과 전 전 구청장이 선두권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다자간 대결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31.1%의 지지율로, 27.1%의 지지율을 얻은 전감길 전 의원을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다. 하지만, 김 의원과 전 전 의원의 차이가 4.0% 포인트로, 오차범위(±4.4%포인트) 내에서 앞선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투표 예상층 지지도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30.9%, 전감길 전 의원이 26.0%로, 격차가 4.9%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. 이어 이정남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16.2%의 지지율을 얻었고, 김영성 전 신문인(중앙일보·서울신문 광고국 근무)이 1.9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그동안의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0%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던 이 전 부의장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외로 높은 지지율을 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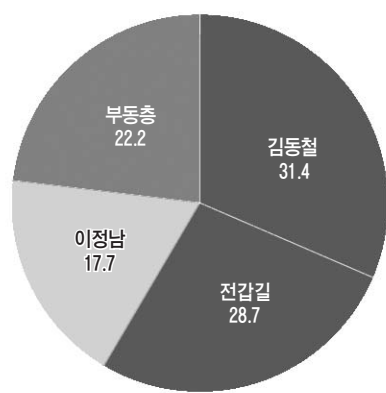


는 이번을 연출했다. 부동층은 23.7%였다.

지역별 지지도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농촌 선거구인 1선거구(도산·동곡·분당·삼도·송정·어룡·광동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, 전 전 의원은 신흥 도심이 중심인 2선거구(신흥·우산·운남·월곡동)에서 지지율이 높았다.

민주통합당 당내 후보 대결에서도 김 의원과 전 전 의원은 각각 31.4%와 28.7%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들의 '진검승부'가 전망된다. 이정남 전 시의회 부의장은 17.7%의 지지율을 얻었다.

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

### 광산구 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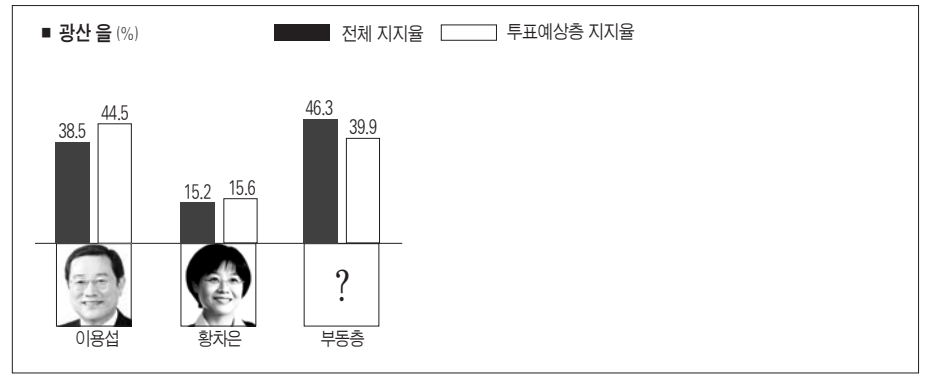
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선 고지로 출달을 치며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. 황차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이 노동자·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지지세를 불러나가고 있지만 다소 버거운 보인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.

이 의원은 응답자의 38.5%가 '차기 국회의원 적임자'로 꼽아 광주 8개 선거구 현역 의원을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.

현역의원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고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으로 당내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다, 인지도도 높아 당내 적수조차 나오지 않는 등 지지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.

이 의원은 전 연령층에서 30%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 특히 40대(45.2%), 50대 이상(38.5%)에서 높았다. 다만, 지난달 광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얻은 지지율(52.5%)보다는 크게 낮아졌다.

황 중앙위원은 15.2%의 지지율을 기록하



면서 분투하고 있다. 황 중앙위원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율(10.0%)에 비해 20대(16.4%), 40대(17.9%)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. 지난달 출마 선언 뒤 당내 경선에서 장연주 후보를 따돌리고 젊은층과 노동자·서민층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지만 힘겨워 보인다.

하지만,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 '모른다'거나 '무응답'한 부동층이 46.3%에 달하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관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.

**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**

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

## 박지원 다양한 연령층서 고른 지지... 추격 불허 선두

## 노관규 선두... 김선동 신도심 지지 업고 바짝 추격

### 목포

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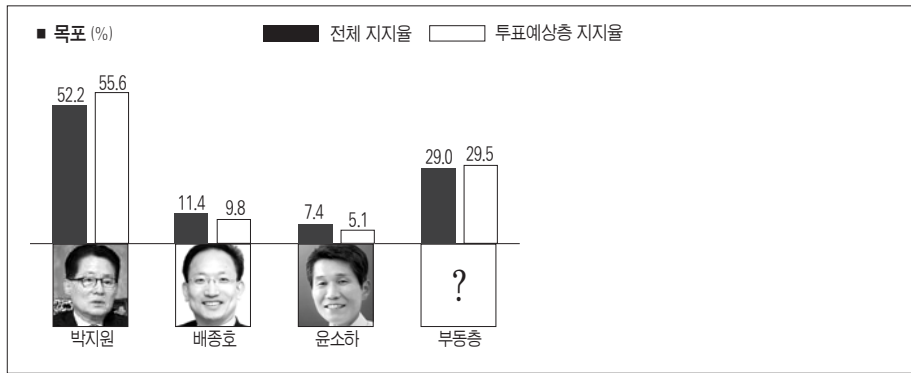
지역 국회의원 적임자를 묻는 조사에서 박 최고위원은 52.2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박 최고위원에 맞서는 전 KBS 뉴욕특파원인 배종호 후보가 11.4%의 지지율을 얻었다.

통합진보당 후보인 윤소하 목포·신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7.4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 부동층은 29.0%였다.

민주통합당 경선 지지도에서도 박 최고위원은 57.2%의 지지율을 기록했고, 배 후보는 16.4%의 지지율을 얻었다. 부동층은 26.4%였다.

박 최고위원의 높은 지지율은 현직 프리미엄의 탄탄한 조직과 높은 인지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, 배 후보는 최근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활동을 넓혀가고 있어 향후 추격권이 기대된다.

연령별 지지도에서는 박 최고위원이 다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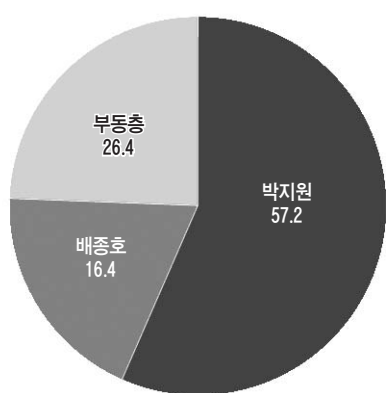


한 연령층으로부터 50%대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예상외로 19세~20대에서 59.8%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배 후보와 윤 후보는 특정 연령대의 지지층이 뚜렷했다. 배 후보는 30대(13.8%)와 40대(15.8%)에서, 윤 후보는 30대(13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.

지역별로는 박 최고위원은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고, 배 후보는 4선거구(삼향·육암·부흥·신흥·부주동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17.1%의 지지율을 보였다.

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

### 순천

현역 국회의원과 재선의 순천시장 출신 후보가 양자택일치라하며 뜨거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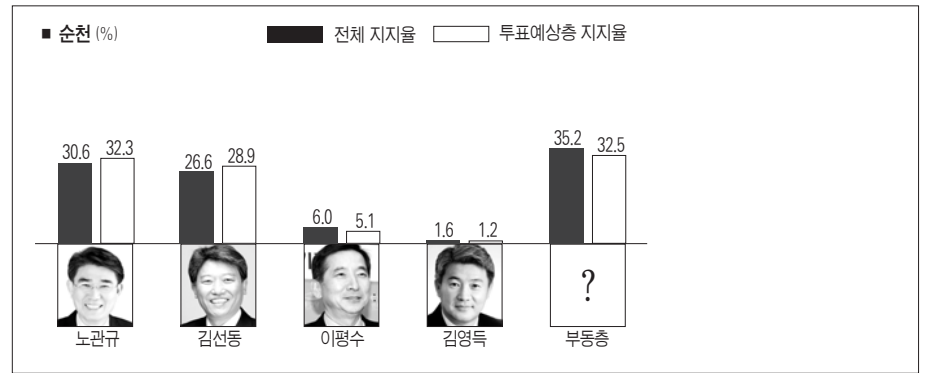
민주통합당 소속의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달 광주일보 여론조사에 이어 또다시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서 ±4.4%포인트)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.

전체 후보 간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 노 전 시장은 30.6%의 지지율로 26.6%의 김 의원을 4%포인트 차로 앞섰다. 지난달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0.7%포인트 앞섰었다.

이어 이광수 전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이 6.0%, 김영득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1.6%를 기록했다.

연령대별로는 노 전 시장이 50대 이상 노장년층과 20대 이하에서 김 의원을 압도한 반면 김 의원은 30~40대 중년층에서 노 전 시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

노 전 시장은 20대 이하에서 35.3%대 12.0%, 50대 이상에서 30.7%대 24.0%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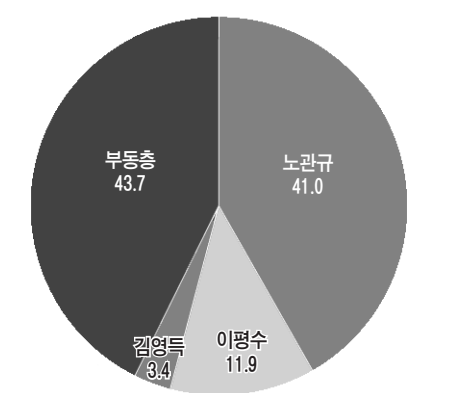


김 의원에 앞섰지만 30대에서 27.9%대 38.0%, 40대에서 28.6%대 34.0%로 뒤졌다.

지역별로는 구도심 위주로 구성된 2, 3 선거구에서 노 전 시장은 40.0%, 36.2%의 지지율을 기록해 17.9%, 28.6%를 기록한 김 의원을 압도했지만 아파트가 많은 신도심 4선거구에서는 김 의원이 35.3%의 지지율로 23.0%에 그친 노 전 시장을 크게 앞섰다.

민주당 경선을 가졌을 때는 노 전 시장이 41.0%의 지지율로 이광수 전 수석부대변인(11.9%)과 김 전 부대변인(3.4%)을 제쳤다.

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

## 김성곤 1위... 중위권 3명 단일화때 선거구도 요동

## 주승용 60% 고정적 지지율... 2위 박종욱 13.9%

### 여수 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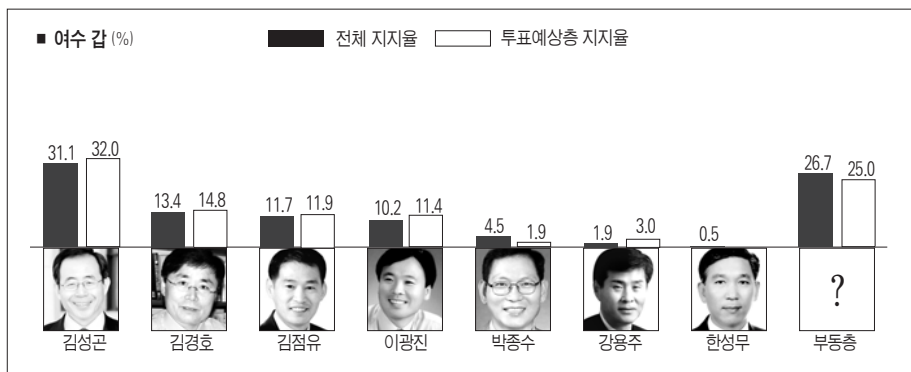
중진의원 물갈이를 기대하며 6명의 후보가 4선을 노리는 김성곤 현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져 현역 의원에 유리하게 선거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체 후보 간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 결과, 현 선거구도는 1강 3중 3약으로 요약됐다.

김 의원이 31.1%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고,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13.4%, 김점유 전 노무현 경선 후보 특보가 11.7%, 이광진 전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집행위원이 10.2%를 기록하며 뒤따르고 있다.

이어 무소속의 박종욱 전 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4.5%, 통합진보당 소속의 강용주 전 여수시의원이 1.9%, 창조한국당의 한성무(주)SKD하이테크대표이사 0.5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김동진 통일노동조합 전무는 이번 여론조사 시작 후인 지난 10일 뒤늦게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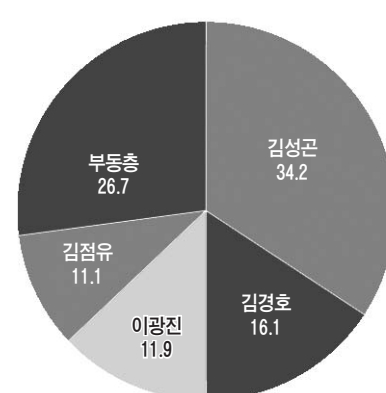


민주통합당 경선을 가졌던 지지도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34.2%의 지지율로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서 ±4.4%포인트) 내에서 자신들끼리 혼전을 벌이고 있는 김 교수(16.1%), 이 전 집행위원(11.9%), 김 전 특보(11.1%) 등 중위권을 따돌렸다.

투표 예상층에서는 김 전 의원이 33.9%, 김 교수가 17.5%, 이 전 집행위원이 13.1%, 김 전 특보가 12.3%를 기록, 격차가 줄어들어 양상으로 나타났다.

때문에 중위권 후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 선거구도도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.

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

### 여수 을

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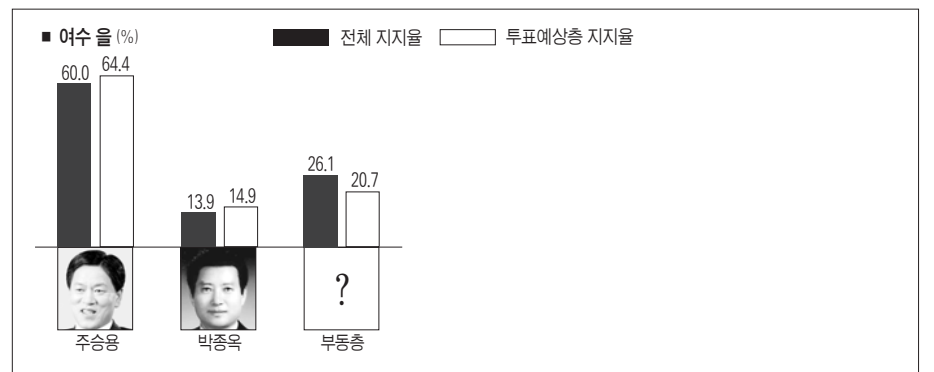
차기 국회의원 적임자를 묻는 질문에 주 의원은 60.0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광주·전남 20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.

투표 예상 층의 주승용 의원 지지율은 64.4%까지 높아졌다. 현역의원이라는 점에서 투표 예상층의 지지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.

주 의원에 맞서는 재단법인 명상개발 이사장인 박종욱 후보는 13.9%의 지지율을 얻었다. 부동층은 26.1%였다.

주 의원이 박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, 오히려 여수시장 구수여 등 각종 약재로 인해 과거 '승용 불패'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.

반면, 지난 16·17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박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, 13.9%를 얻어 짧은 시간에 선전한 것



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민주통합당 경선 지지도에서도 주 의원이 박 후보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 주 의원이 62.0%를 기록한 반면 박 후보는 14.3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다만, 여수 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주 의원에게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곧 있을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수 갑과 을이 통합될 경우 김성곤 의원과의 맞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한편, 4·11 총선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6.9%가 '반드시 투표한다'고 답했다.

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